滅共

贈呈

英明하신 民族의 指導者
世界의 反共斗士

李承晩 博士

創刊号

「멸공」 1957. 6 창간호

수어 않고 生活力을 더한층 旺盛하게 發揮하였을때 우리들의 生活을 豐되며 대체 女子가 天性으로서의 柔弱性과 瓢從하려는 內的인 生活能力을 具備하다는 것이다。 그리하기 爲해서는 무엇보아도 어찬 活動과 從容한 鍛鍊에서

（筆者 大韓婦人會 서울特別市本部 副會長）

―〈北韓 뉴―스〉―

所謂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의 全貌

拉致人士들을 使嗾하여 對南放送에 利用한다

북한에 칩거(蟄居)하고 있는 괴뢰집단은 그들의 평화공세를 위하여 갖인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거니와 최근에 또 다시 해방후 괴뢰집단을 동경하여 월북하였던 공산주의 동조자(同調者)、중립주의자 및 기회주의자들과 그들이 六、二五 당시에 불법 납치하여간 전 대한민국의 저명한 각계 인사들을 총망라하여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라는 것을 조작해 내었다。

괴뢰집단은 지금까지 납치인사들의 동태(動態)에 관하여는 극히 비밀에 붙이어 왔다。 안재홍을 비롯한 오하영, 윤기섭, 조소앙, 송호성, 엄항섭 등은 작년부터 마이크 앞에 내세워 대남(對南)방송에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나머지의 인사들에 관해서는 전혀 침묵을 지켜 왔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 괴뢰집단은 자기들이 아무리 필사적으로 가지 가지의 평화공세를 전행하여도 이에 대하여 조금도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리어 괴뢰집단의 기만성과 허위성을 제때에 간파하고 이를 폭로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드디어 납치인사들을 표면에 내세워 이용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다수의 납치인사들을 이용하면 심리(心理)전에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납치인사들만으로서 어떠한 단체를 조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왜냐 하면 납치인사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이면 비밀리에 어떠한 공작을 할런지도 예측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괴뢰집단은 안심하고 납치인사들을 표면에 내세워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납치인사들의 조직에다 자진 괴뢰집단을 동경하여 월북한 자 및 기타의 좌익분자들이 조직체에다 혼합시켜서 납치인사들을 감시케 하자는 반안을 고안해 내었다。

그리 하여 괴뢰집단 중 더 정확히 말하면 괴뢰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四월의 전당회가 있은 후로부터 극비밀리에 이와 같은 공작을 추진시켜 왔다。

제일 첫단계로 평양 혹은 국경지방의 농촌 속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던 납치인사들 가운데서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를 수백명、그것도 가능하면 저명한 인사로부터 선택하여 평양 기림리의 일우에 모아 놓였다。 이들 납치인사들은 그동안 六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사이에 매일 같이 괴뢰들의 정치학습회니 교양학습이니 하여 시달림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무엇이든지 반항할 줄을 모르고 괴뢰들이 시키는대로 완전한 허수아비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illegible]

괴뢰들은 이 납치인사들에게 평화통일촉진협의회라는 것을 조직한다는 것을 전달 (일시키는 한편에서 월북 공산주의 동조자들에게 자자 개인별로 납치인사들을 감시할 밀명(密命)을 주[illegible]으로 조직되는 「평화통일촉진협회」내에서 선봉적이며 선동적인 역할을 하라고 지령하였다。

괴뢰집단은 이와 같은 면밀한 계획밑에서 용이주도하게 계획이 완료되자 지난 六월 二三일、월북、납치인사들 가운데에서의 거물급인 전기 六씨 및 김약수(金若水)、최동오(崔東旿)의 八씨를 앞에 내세우고 소위 신문기자회견을 시켰다。 안재홍 등은 이 석상에서 괴뢰들이 시킨 그대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은 촉진시키며 외국의 예속과 민족 상쟁의 전쟁을 반대하고 남북자의 현상 고독의 촉진에 이바지 하

기 위하여」라는 미사려구(美辭麗句)로 단장된 목적을 위하여 입북한 정치인사들과 상설적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라는 것을 조직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러하여 六월 二九일에는 평양에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대회 준비를 위한 발기인총회라는 것이 개최되었다。 동 총회에서는 앞으로 개최될 결성대회 준비를 위한 여러가지 사항의 토의되었다。 이것도 역시 괴뢰집단이 제시한 안(案)을 형식적으로 토의하고 찬성의 의사를 표시한、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동 괴뢰집단은 이 발기인총회에 참가한 인원이 四八명이라고 발표하였는데 다음에 그 소속과 명단을 밝히기로 한다。

이에는 납치인사들 뿐만 아니라 월북자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들의 월북 또는 납치 당한 후의 사상적 전환관계를 분석하기 곤란하며 또한 잔류가족들의 요청도 있고 하여 여기에 일괄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趙素昂	제二대국회의원	전사회당
柳駿秀	〃	무소속
安在鴻	〃	전민정장관
白象圭	〃	민족자주연맹
金憲植	〃	사회당
丘德熟	〃	한국독립당
朴竹圭	〃	〃
朴英來	〃	무소속
辛錫斌	〃	〃
趙憲泳	〃	전민주국민당
梁在廈	〃	무소속
金七星	〃	민족자주연맹
李相殷	〃	무소속
元世勳	입법및제二대、국회의원	민족자주연맹
吳夏榮	〃	전정치대학장
張蓮松	〃	민족자주연맹
尹琦燮	〃	
金庚培	제一대、제二대、국회의원	한국독립당
趙鍾勝	〃	대한노동당
崔東旿	입법의원	
金若水	입법、제一대、국회의원	
李根萬	제一대국회의원	전민주국민당
申性均	〃	한국독립당
盧鎰煥	〃	전민주국민당
李文源	〃	한국독립당
金長烈	〃	대한노동당
金秉會	〃	사회당
權泰義	〃	기독교목사
張重麟	〃	전민주국민당
黃潤玉	〃	민족공화당
姜順中	〃	〃
李鍾洙	〃	사회당
朴允源	〃	〃
金孝錫	〃	전민주국민당、전내무장관
崔泰圭	〃	민족공화당
金沃周	〃	전민주국민당
嚴恒燮	한국독립당	
宋虎聲	전경비대총사령관	
明濟世	전심계원장	
朴承好	대한부인회신회장	
金鎔漢	한국독립당	
金宗元	대한노동총동맹	
朴 廉	녀자국민당전부위원장	
朴 烈	재일한국인거류민단전단장	
白承日	한국독립당	
薛儀錫	무소속、실업가	
申相鳳	민족자주연맹	
吳正方	전전국청년회단장	

다음 七월 二일과 三일의 양일간에 걸쳐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발기인총회가 예정한 그대로 월북 및 피납치인사들에 의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대회라는 것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약 八백명의 전망 한국정치무대에서 활약하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고 괴뢰집단은 선포하였다。 즉 그들은 납치인사 가운데서의 저명한 인사들은 거의 전부를 이에 몰아넣은 것이다。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강령(綱領)과 약정(約定)을 통과시키고 결성대회 선언(宣言)이라는 것은 발표하였으며 집행의원 선거 등은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이 통과시키고 혹은 채택하였다는 강령이나 선언을 보면 괴뢰집단이 지금까지 평화공세로서 주장하고 있던 사항들은 다시 되풀이하였음에 불과한 것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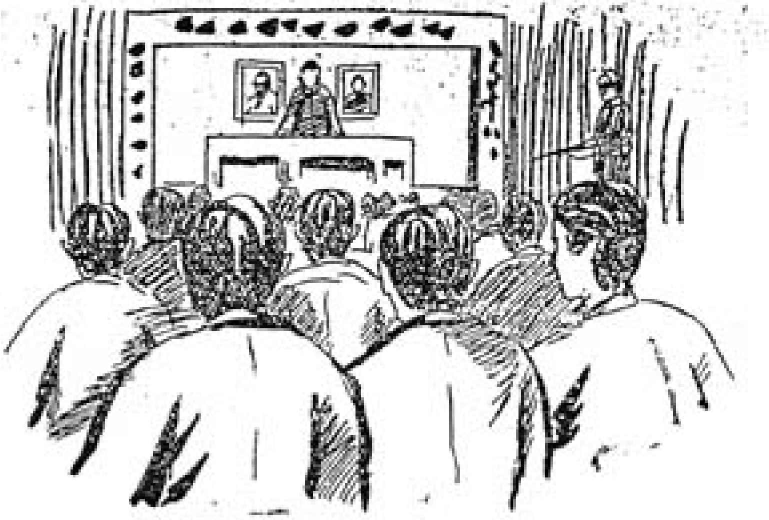
그런데 이 회의에서 소위 토론이라고 하여 발언한 자를 보면 전 국회의원 오하영、원세훈、윤기섭、그리고 명제세、박승호、김효석、박인、엄항섭 등인데 이들의 발언 내용을 몇가지 인용하여 보기로 하겠다。

전 대한부인회 부회장인 박승호(朴承好)는 괴뢰집단이야말로 「민족의 낙원을 건설하고 있다」라고 하여 괴뢰를 찬양하였으며、윤기섭은 괴뢰가 제의한 「평화적 통일 방안은 내가 항상 품고 오던 원(圓望)과 완전히 합치」되는 것

이라 하였고、전 심계원장 명제세는 것이라 하였다。

다。

이라 하였고、전 심계원장 명제세(明濟世)는『자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괴뢰의 제안에 궐기하라고 한국에 있는 자기의 옛 동지들에게 호소하였다。



기독교 목사이며 전 국회의원인 권태의(權泰義)와 전 국회의원 오하영은 괴뢰집단의 평화통일노선은 자기들이 신봉하는 기독교의 교리와도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발언자들은 모두가 북한괴뢰를 극구、찬양하고 그들의 제안만이 한국의 통일을 조속히 실현하는 길이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기독교인들은、기독교의 교리와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이와 같이 납치인사들의 모두가、괴뢰에 아부하는 발언을 하고、있는 것은 그 중에는 괴뢰들의 집요한 선전으로 말미암아 사상전환을 하고 있는 자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대부분은 괴뢰의 강압에 이기지 못하여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할 수 없이 이와 같은 발언은 하게 되는 것이다。요컨대 그것이 소위 그들 납치인사들에게 부과된、운명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집행위원을 선출하였다고 하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고 위원에 오하영、조소앙、안재홍의 三명이다。이들은 과거의 거물이라는 것으로 부터 가장 높은 감투를 차지하게된 모양이다。

다음에 상무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원은 오하영、조소앙、안재홍、김약수、김효석、송호성、엄항섭、원세훈、윤기섭、최동오、황윤호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상무위원회라는 것이 상설기관이므로 협의회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집행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는 『전기 상무위원회 위원 十一명 외에 김경배、김종원、양재하、명제세、박열、박보렴、박승호、조헌영 등이 참가하여 계 十九명으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란 괴뢰집단이 일상적으로 대하는 대남 평화공세의 하나의 막간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요는 평화공세의 효과를 좀 더 크게 거두려고 납치인사들을 총동원하여 허수아비와 같은 단체를 하나 조작해 내었을 따름인 것이다。

—祝 發 展—
大韓電業團
朝鮮電業株式會社
京城電氣株式會社
南鮮電氣株式會社